

GS칼텍스-LG화학, 전기차 충전 솔루션 개발 MOU

빅데이터 활용 배터리 특화 서비스

시그넷이브이 등 업계 파트너 협업
배터리 안전진단 서비스 우선 개발
빅데이터로 현재 상태·위험성 확인

GS칼텍스와 LG화학이 전기차업계
파트너들과 손잡고, 빅데이터를 활용
한 전기차 배터리 특화 서비스 개발에
나선다.

GS칼텍스와 LG화학은 7일 서울 여
의도 LG트윈타워에서 시그넷이브이,
소프트베리, 케이에스티 모빌리티, 그
린카와 함께, '충전 환경 개선 및 신사
업 기회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MOU)'
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GS칼텍스와 LG화학은 전기차 생태
계 발전을 위한 충전 솔루션 개발 필요
성에 뜻을 같이 하고, 전기차 충전 과정
에서 발생하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배
터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면
서 전기차 업계 파트너들과 함께 협업
하게 됐다.

이날 체결식에는 LG화학 자동차전
지사업부장 김동명 부사장과 GS칼텍
스 전략기획실장 김정수 전무, 시그넷
이브이 황호철 대표, 소프트베리 박용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충전 환경 개선 및 신사업 기회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왼쪽부터) 케이에스티 모빌리티 이행열 대표, 그린카 김상원 대표, LG화학 김동명 부사장, GS칼텍스 김정수 전무, 시그넷이브이 황호철 대표, 소프트베리 박용희 대표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GS칼텍스

희 대표, 케이에스티 모빌리티 이행열
대표, 그린카 김상원 대표를 비롯한 업
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충전소에서 수집한
전기차 빅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배
터리 특화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한 것
으로, GS칼텍스와 LG화학은 우선적
으로 배터리 안전진단 서비스를 개발
하기로 했다. 배터리 안전진단 서비스
는 전기차(그린카, 케이에스티 모빌리
티)가 GS칼텍스 충전소에서 충전을 진
행하는 동안 주행 및 충전 데이터를 클

라우드에 저장하고, LG화학 빅데이터
분석 및 배터리 서비스 알고리즘을 통
해 배터리의 현재 상태와 위험성을 확
인해 충전기(시그넷이브이)는 물론 운
전자의 휴대폰(소프트베리)에서도 바
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GS칼텍스와 LG화학은 내년까지 실
증 사업을 완료한 후 국내 서비스 사업
을 론칭하고, 2022년부터 해외 충전 시
장으로 배터리 특화 서비스 사업을 확
대할 예정이다.

/김수지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클라우드 시장경쟁 '후끈'

'카카오 아이 클라우드' 사업 시작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의 플랫폼 사용

국내 시장이 클라우드 격전지로 주목
받고 있다. 향후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클라
우드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본 기업들
이 클라우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이달부
터 기업용 클라우드 서비스인 '카카오
아이(i) 클라우드' 사업을 시작했다.
네이버에 이어 카카오까지 클라우드
시장에 뛰어들면서 해외 업체와의 경
쟁 구도가 주목된다.

카카오 아이 클라우드의 운영은 자
회사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맡는다.
카카오 아이 클라우드는 카카오의 10
년간의 핵심기술이 집약된 서비스로,
카카오는 퍼블릭, 프라이빗 및 여러 기
업의 클라우드를 멀티, 하이브리드 등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의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카카오 서비스들과의 연결성과 AI
에 최적화된 클라우드도 강점이다. 다
양한 AI 서비스를 서비스형 플랫폼(P
aaS)과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형태로 제공해 차별점을 뒀다.

네이버는 자회사인 네이버비즈니스



카카오는 이달부터 기업 클라우드 서비스 사
업을 진행한다. /카카오 아이 클라우드 홈페이지 캡처

플랫폼(NBP)을 통해 클라우드 사업을
펼치고 있다. 네이버는 현재 강원 춘천
에 데이터센터를 운영 중이며, 세종시
에 제2의 데이터센터 건립을 계획 중이
다. 연내 착공 예정이며, 2022년 완공
이 목표다.

카카오는 현재 데이터센터를 대여해
쓰고 있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자
체 데이터센터 구축을 염두에 두고 있
는 상황이다.

국내 클라우드 시장은 아마존웹서비
스(AWS), 마이크로소프트(MS), 오
라클, 구글, IBM 등 해외 기업이 패권
을 다투고 있다. 지난해 정보통신산업
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클라우
드 시장의 67%를 해외 기업이 차지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코로나 사태에도 수입차 인기 여전 ... 獨 브랜드 판매 증가

신규등록대수 전년동기비 17% ↑
日 브랜드, 갈수록 입지 축소



벤츠-BMW-아우디 로고.

국내 수입차 시장이 신종 코로나바
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도 흥
행을 이어가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 BMW, 아우디
등 독일 브랜드의 판매량 상승과 올해
수입차로 합류한 쉐보레 브랜드의 판
매 증가에 힘입은 결과다. 이같은 분위
기는 올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
인다. 다만 일본차 브랜드는 지난해 불
매 운동 이후 갈수록 입지가 축소되고
있다.

7일 수입차 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
기 수입차 신규등록대수는 전년동기
(10만9314대) 대비 17.3% 늘어난 12만
8236대로 집계됐다. 올 상반기 판매량
1위를 기록한 벤츠는 국내서 3만3638
대를 판매하며 전년 동기대비 9.8% 증
가했다. 이어 BMW는 2만5430대를 기

록 전년 동기대비 41.5%나 급상승했
다.

특히 아우디코리아는 올 상반기 1만
71대를 판매하며 전년 동기대비 293%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아우디가 상
반기에 1만대를 돌파한 것은 2016년 이
후 처음이다.

다만 2016년 상반기에는 1만대를 돌
파했지만 디젤게이트가 본격적으로 국
내 영향을 미친 하반기부터 판매가 급
감해 그 해 2만대를 돌파하지 못했다.
아우디는 지난 6월 한 달 간 3401대를
기록, 전월대비 56.2% 늘어난 판매량
을 보이며 배출가스 조작 논란을 극복
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처음 수입차 시장에 합류한
쉐보레는 대형 SUV 트래버스와 픽업
트럭 콜로라도의 인기에 힘입어 7380대
를 판매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브랜드별 신
차 출시와 개별소비세 등 긍정적인 영
향에 힘입어 판매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는 올 하반기에도 이
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 6월까지
개별소비세를 5%에서 1.5%로 축소하
반면 기존 100만원까지였던 감면 한도
혜택을 무한대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고가의 수입차를 구매해도
세금 혜택은 5%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국내 수입차 전체가 상승
세를 이어가는 건 아니다. 같은기간 일
본차들의 판매는 상반기 총 1만43대로
전년 동기(2만3482대) 대비 57.2% 판
매가 급감했다. /양성운 기자 ysw@



지난달 24일 쌍용자동차 대전연수원에서 참석자들이 교육 수료 후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쌍용차, 軍 정비기술 역량 강화 지원

수송부대 병력 대상 정비기술 교육

쌍용자동차가 국군의 차량 정비기
술 향상 및 군부대 내 정비기술 전문가
육성을 위해 교보재 기증과 함께 정비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군의 정비기술 역
량 강화 지원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쌍용차는 지난 2월과 6월 쌍용차 대
전연수원에서 남수단에서 파병 임무를
맡게 된 한빛부대를 포함해 육군과 공

군의 작전차량 정비를 전담하는 정비
대대 및 수송부대 병력을 대상으로
2020년도 정비기술 교육을 실시했다.
총 9차수로 나눠 진행된 교육 기간 동
안 참석자들은 경정비 교육을 비롯해
차량 시스템별 기능 설명, 고장 진단 및
고장 유형별 분석방법 등 지휘차량 및
지원차량 관리에 필요한 정비기술의
이론과 실기 교육을 받았다.

/양성운 기자

기아차, 2030 전용 구매 프로그램 출시

차량구매 부담 완화 '스타트 플랜'
가격 유예·특별 저금리 등 적용

기아차는 2030 세대의 차량 구매 부
담 완화를 위한 새로운 구매 프로그램
인 '스타트 플랜' 프로그램을 출시했다
고 7일 밝혔다.

'스타트 플랜' 프로그램은 ▲차량 가
격 일부 유예 ▲특별 저금리 적용 ▲다
양한 부가 서비스 연계 등의 혜택을 제
공하는 기아차만의 특별한 구매 프로

그램이다.

구체적으로 7월 중 모닝, 레이, K3,
니로 HEV, 쏘울, 스토니, 셀토스, 스
포티지 차량을 출고하는 2030 세대 개
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이 이번 프로그
램을 이용할 경우, 총 48개월의 할부 기
간 동안 ▲선수율 제한 없이 차량 가격
의 최대 57%를 유예하고 ▲3.5%의 특
별 저금리 혜택을 적용 받아 차량 구매
부담을 대폭 완화할 수 있다.

또 '스타트 플랜' 프로그램 이용 고



기아차 스타트 플랜 구매 프로그램.

객이 기아차의 다른 차종으로 대차를
고려할 경우, '중고차 가격보장 서비
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차량을 매각한
후 남아 있는 유예금을 상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양성운 기자

SK매직, 고객 맞춤형 영상 상담 실시

콜센터·A/S기사, 3대1 동시 접속

SK매직은 고객 문의에 보다 빠르게
대응하고,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해 '모바일 영상 상담 서비스'
를 도입했다고 7일 밝혔다.

'모바일 영상 상담 서비스'는 콜센터
상담사와 고객의 휴대폰 카메라 영상
을 통해 진행되는 영상 상담 서비스로
고객은 구두로 설명하기 어려운 장애
증상과 상황을 휴대폰 영상으로 전달

하고, 장애 조치 방법 등 해결 방안을
신속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고객은 별도 어플리케이션 설치 없
이 콜센터 상담사가 발송한 단문메시
지서비스(SMS) 링크를 클릭해 영상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접속 후
에는 콜센터 상담사뿐 아니라 설치와
수리를 담당하는 A/S기사까지 3대1
동시 접속해 실시간으로 제품 상태를
확인하고, 고장·장애 등 대응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한다. /김승호 기자 bada@